

제14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0. 11. 23. [월] 09:30 ~ 12:50
장 소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세미나실
참 석 자	위원장 등 10명 (재적인원 11명 중 10명 참석)
주요내용	○ 시민참여단 사전교육 및 속의 토론회 개최시기 및 세부프로그램 논의 ○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설문조사(안) 논의
회의결과	○ 시민참여단 사전교육 및 속의 토론회 개최시기 및 세부프로그램 - 코로나 1.5단계 적용(' 20. 11. 23.)으로 전주시 '방역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계획대로 행사 개최 또는 연기 결정 ○ 시민참여단 사전교육(0.T) - 여는시간 : 2차 설문조사, 공론화의 이해, 시나리오워크숍 과정, 결과 설명 - 제 1세션 : 2035 전주시도시계획 설명, 시나리오별 시민대표 발표, 분임토의 - 제 2세션 : 질의응답, 자료집 및 위촉장 배포 ○ 시민참여단 속의 토론회 - 제1세션 : 시나리오별 시민대표 발표(구체적으로), 분임토의, 질의응답 - 제2세션 : 연관검토사항 설명, 분임토의, 질의응답 - 제3세션 : 최종 분임토의 및 3차 설문조사 ○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설문조사(안) 논의 - 시나리오(안) 선호 정도, 연관검토사항 관련 중요도 및 인식도 조사 등

제14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 개회

발 언 자	발언 내용
간사	- 금일 제14차 시민공론화위원회에는 재적인원 11명 중 10명이 참석 해주셨습니다. -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는 진행 상황 보고, 시민참여단 사전교육 및 숙의 토론회 개최시기 및 세부프로그램 논의, 공론조사 설문 조사(안)에 대한 검토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네, 그러면 제14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진행상황 보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진행상황 보고

전주시 관계자	- 진행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 의견 수렴 사항은 추가적으로 총 4건 더 게재가 되어 43건이 되고요. 그중에 4건 모두 다 개발을 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리고 현재, 공론조사 1차 조사를 지금 11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 12월 4일까지 3주간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1500명 대상으로 성별, 연령대 그리고 지역 그렇게 고려해서 조사하고 있는 있으며 주민등록현황에 분포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1500명 표본을 만들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유무선 연락을 취했을 때 약 837명 조사가 됐고 56% 정도 됩니다. - 다만, 지금 60대 이상은 전원 다 연락이 닿았지만 18 ~39세, 40 ~59세 부분들은 평일 중에는 연락이 쉽지가 않았던 부분으로 주말을 더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 여기까지 진행상황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 그러면 시민참여단 12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주시 관계자	- 시민참여단 120명은 앞에 표를 보시면 현재까지 약 76명 참여를 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 위원	- 지금 76분이네요. - 처음 조사 퍼센트보다는 조금 많이 지금 현재 뽑힌 건가요.
전주시 관계자	- 지금 일주일 정도 진행했는데 지금 과반수는 넘어섰는데요. - 다만 이제 나이가 젊은 청장년층 확보하는 데가 어려움이 있어서요.
위원장	- 설문조사 공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얘기해 주시죠. - 진행 상황에 더 알고 싶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냥 넘어가도록 할까요?
○○○ 위원	- 여기에 지금 아까 진행률이 아까 지금 56%, 며칠 작업한 건가요?
전주시 관계자	- 지금 일주일 경과되었습니다
○○○ 위원	- 한 페이지 더 넘게 보시면 76명이고 그러면 44명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해야되네요?
전주시 관계자	- 그렇지만 저희가 딱 120명을 확보하게 되면 그날 부득이 참석 못 한다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저희가 1.5배 정도 확보 예정입니다.
○○○ 위원	- 아무래도 최소한 지금 관련 시간도 보면 그만큼 시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 길게 보면 열흘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 위원	- 1차가 12월 12일이죠. 오리엔테이션이. 그때까지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용역 수행기관	- 일단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끝나면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마지막 주에 할 겁니다. - 그래서 한 번 더 거쳐서 현재까지는 100% 확신할 수가 없는 게 약,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이라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또 갑자기 못 한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청장년층이 굉장히 지금 참여율이 적습니다. - 50, 60대 이상 다 참여 가능한데 40대 이하 층이 적어서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저희들은 그때 한 100명해도 좋은데 그런데 120명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100명은 해놓으면 나중에 90분이나 80분 정도 참석하면 안 되니까, 120분으로 해서 적어도 실제로 참석하시는 분이 적어도 100명은 넘어야 한다 이것은 원칙인 것 같습니다. - 또 혹시나 추가 질의사항 없으시면 그러면 그냥 저희는 이제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	- 조사 관련해서 이걸 되게 중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 지금 계속 저희가 공론조사를 하는 게 설문 조사라는 걸 병행하고 있거든요.

○○○ 위원	- 같이 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 공론조사 바로 하고 설문조사 바로 하고 근데 설문조사라고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 이렇게 나가면 계속 그냥 공론조사가 아니라 이게 시민들한테 설문 해서 결정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인식이 되가지고 이거는 되게 속 의의 개념이 우리 공론화 과정에서 퇴색되는 현상이어서 공론화의 기본이 안 지켜지는거 같거든요. - 그래서 지금 계속 언론보도도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방식은 설문 방식이지만 이걸 설문조사가 아니라 공론조사이고, 공론조사는 1차, 2차, 3차 조사 이렇게 가는게 방식이기는 합니다. - 그런데 이렇게 설문조사라고 표시를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공론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그냥 다 결정하나보다 이렇게 인식하는게 크기 때문에 설문조사라 표기한 것들은 다 빼주시고 1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로 표기를 다 바꿔주세요
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하죠. - 우리 저희들 위원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공론조사 괄호 열고 빼고 그래서 1차 공론조사 2차 공론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 그러면 공론 1차 공론조사의 목적이 뭐냐 뭘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죠? - 120명의 참여자를 뽑는거다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누구나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 120명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선호도를 평가하는 거다. -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되는데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조금 설명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 위원	- 일단 2차조사, 3차조사를 통해서 이게 지금 속의를 통한 의견의 변화를 조사를 할 거다.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 속의라는 단어를 계속 빼시고 무슨 무슨 조사 이렇게 나가면 이게 상당히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은 되게 도피할 가능성이 큼니다. - 그래서 앞에다가 속의를 통한 의견 변화 내지는 속의를 통한 서론 변화 이런 식으로 말씀 하시는게 가장 용어상으로는 어울릴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그래서 그냥 뭐 나갈 때 물론 이제 그 방식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그러면 이제 부연 설명하시면서 그 방식은 설문 방식으로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냥 설문조사, 선호도조사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좀 이거를 그냥 공론화가 그냥 시민들이 가서 설문 방식으로 끝나나보다 이렇게 아직은 알고들 계실거 같아서요.

○○○ 위원	- 의견조사 의견지형 표현이 좀 어렵긴해요.
위원장	- 그러니까 조사라는 단어를 잘 안 쓰면 좋겠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조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 우리 위원님이 설명을 조심하고 받아들이는 걸로 하죠.
○○○ 위원	- 시청에서 기자들이 출근하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하셔서 공론화위원회다 이랬더니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 나가면서 거의 잘 모르는 친구들은 거의 마무리된 것처럼 알고 있더라고요. - 그래서 이제 반 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 이거는 설문조사가 아니고 공론 조사단을 꾸리기 위한 과정에서 참여 여부를 묻는 것이고 그 참여자들의 의견의 변화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하는데 그러면 참여자 꼭 120명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 그러니까 120명은 당연히 처음의 의견과 교육과 토론을 통한 의견의 변화들을 우리가 볼 거고 그것도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공론조사에 참여를 묻는 것부터가 참여단의 대상이기 때문에 공론조사를 하기 위한 저는 선호도 이런 말을 썼습니다. - 이제 오늘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선호조사보다도 나도 공론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를 뽑기 위한 선호조사다의 이야기는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단계 더 물어보면 그러면 참여할건지 안할건지도 의견지형이다라고 보는거거든요. - 여기서 그래서 그거 먼저 보고 참여단 중에서 120명을 뽑는 거죠. - 120명이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별도로 의견지형을 물을 거다 그런 적응 중 하나다 1단계 2단계로 나뉘서 1단계 때는 무조건 그냥 조사를 위한 설문이다라고 조사 참여자를 뽑기 위한 설문이다라는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물어보면 120명을 뽑는 이유는 약간 의견지형이 올 수도 있고 1500명 특히 물어보는 거예요. - 참여 의사를 물어보는 것부터가 공론조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그냥 전부 마치면 그렇게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위원장	- 어쨌든 앞으로 표현을 할 때 공론조사 자료를 그리고 설문조사를 빼고 공론조사 그래서 1차 조사 2차 조사 이렇게만 표현한다. 언론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 또 하나 여기에 개발을 하는데 개발을 해야되는 곳은 하는 거죠. 개발은 한다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의 방식이지 자칫 개발 안 하고,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그 관건이다 개발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그 정도로 저는 그러면 진행 상황 부분은 그렇게 종결짓도록 하고요. 차질 없이 좀 시간을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각별히 좀 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 위원장님이 공론조사에서 뭘 하는 것이냐 할 때 대답하시기가 조금 난감하신 모양 같은데요. - 그리고 공론조사에 뭘 조사하는지 아까 애매하더라고요. - 그것은 숙의하는 집단을 선정하는 것 같고, 이런 것만 강조되는 천연염 샘플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 지금 우리 조사하는 거 보면 현재 조사하고 1차 조사에는 그 시나리오별을 어떻게 보느냐를 평가하고 있어요. -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하나요? 3개 시나리오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고 묻고 있던가요?
용역 수행기관	-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좀 최종안에 바뀌었습니다. - 어떤 거 위주로 개발했으면 좋겠냐로 여섯 가지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 위원	- 위에 시나리오별 의견이 하나가 공론조사 1차 조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숙의단을 선정 숙의단 후보를 선정하고 있어요. - 그리고 지금 2차 조사, 3차 조사에서는 지금 시나리오별 평가를 분명히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 거기에는 보니까 시나리오를 별 평가단들 시나리오 별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시나리오 의견이 1,500명한테 조사하고 다시 또 사전조사에서 시나리오 별 의견을 듣게 될 것 같아요. - 제가 보기에 거기서는 지금 선택을 하게 되면 이건 선호도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상당한 구속력을 가져요. - 그러니까 시나리오 별 의견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 조사와 똑같이 하고요. - 그리고 중요 고려 요인을, 즉 개발시 중요 고려 요인을 조사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간 활용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숙의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거 같아요. - 3차 조사에는 후기 과정에 평가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포함하는 내용이 꽤 많아요. - 시나리오별 의견, 중요 숙의단 선정, 중요 고려 요인, 그 다음에 공간 활용 의견, 그 다음에 숙의 과정 평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 시민참여단 사전교육 및 숙의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 논의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첫번째 안건으로 시민참여단 사전교육 및 숙의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안건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프로그램하고 사전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주시죠
전주시 관계자	- 지금 그 참여 프로그램 논의 앞서서 잠깐 한번 오늘도 서울시가 2단계로 코로나가 격상이 돼 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저번주 금요일부터 1.5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다 저희가 인원내 대한 학술 행사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을 받다 보니까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두차례 12일과 19일 행사와 관련하여, 지금 12일 같은 경우는 시청 광장에서 1, 2층 다 활용을 해서 지금 오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1인당 4제곱미터 이상 이격을 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게 공간적으로 좀 떨어뜨려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나머지 19일 날은 이게 학술 행사 그런 성격의 진행이다 보니 이거는 수용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 잠깐만요. 12일은 어디서 한다고요?
전주시 관계자	- 시청 강당입니다.
○○○ 위원	- 전주 시청 강당에서, 여기서는 문제없다? 그죠? - 이대로 12일 오리엔테이션하고 자료 나눠주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니까요. - 전주시 강당에 120명이 다 들어가도, 아니 강당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공간을 나누는 겁니까?
전주시 관계자	- 강당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	- 문제없다 그렇게 하는거고 그러면 다만 문제가 19일은 어디로 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웨딩홀을 빌리는거죠 - 19일 날은 나눠서 분임회의를 합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전체 회의도 있고 분임회의도 있고
용역 수행기관	- 자리 자체는 거기가 꽤 넓은 공간입니다. -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반 정도 활용하려고 했는데 전체 크기는 아마 4제곱미터당 1명은 충분히 확보는 가능한데 왜냐하면 한 테이블당 이게 같이 접촉 간격 자체가 떨어뜨릴 수가 없는 조금 그런 상황이라서요.
○○○ 위원	- 분임 토의를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네요? - 그러면 대안은 어떤 겁니까?

용역 수행기관	- 일단 대안은 좀 간격을 넓히는 그런 토론 자체가 좀 힘들 수가 있어서 마스크도 다 착용하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은 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측면 그 외에 조금은 대안을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위원	- 거기 장소가 웨딩홀 어디?
용역 수행기관	- 5층의 컨벤션 센터 꼭대기입니다.
○○○ 위원	- 거기가 저희가 행사를 했을 때 원탁 테이블 큰거 놓고 테이블을 났을 때, - 그러니까 테이블을 두 개를 이렇게 해서 하면 나머지 120명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역 수행기관	-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 위원	- 한 공간에 아무리 넓더라도 100인 이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 위원	- 공간을 달리하면 되죠. 같은 공간에 그렇게 모이면 안 되지요.
○○○ 위원	-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건 실질적인 참여자들의 거리 두기가 가능하냐 이게 먼저거든요. - 공간이 어느정도 있느냐라고 두 번째는 참여자가 1m 거리 두기가 원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테이블이 아까 2개로 10명이 앉으라면 2개로 앉으면 되는 거고 그거 하나는 해결이 되는 거고요. - 그다음에 이게 열고 닫는 거고 해서 원래 하다 보면 저희가 방 두 개를 따로 빌리는거나 마찬가지로요. -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이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가 워낙 넓다라는 거죠.
○○○ 위원	- 그런데 100명을 지금 넘냐 안 넘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 위원	- 그러니까 거기가 항상 이렇게 공석이 가능하거든요.
○○○ 위원	- 진행자들도 있어야 하고 분임 토의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하고 위원회도 하다 보면 거의 120명씩 하자면 160명이 오시는 거거든요
○○○ 위원	- 공간을 나누고 화상을 띄우면 어떨까요?
○○○ 위원	- 잠깐만 지금 두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얘기가 되는데 하나는 일단 공간을 나누잖아요? - 한 공간이 아니고 나누는데 진행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공간은 아닌 데, 또 PPT를 같이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공간은 칸막이로 해서 나누는데 양쪽에 떨어져서 한 PPT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렇게 하면 공간은 나눠졌기 때문에 한 공간에 140명 70명, 70명 들어간다. 그렇게 해도 어떤 가 그럴 수는 있는가 그걸 먼저 물어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 위원	- 거기에 지금 빔프로젝트가 3개에서 4개 정도 나왔는데 그게 한 시스템에서 같이 구동이 돼요. - 그러니까 음량이 칸막이로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면 두 개의 공간에서 동시에 재생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역 수행기관	- 프로젝트가 양방향에 다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괜찮지 않은가 그거죠. 공간이 분리되니까 - 다만 지금 ○○○ 위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120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참여하고 하는 분들 뭐 20분 정도 하면 140명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감안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이 하신 또 얘기 중 하나는 그냥 100명으로 좀 이렇게 100명으로 숫자를 맞추는 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실, 아닙니까?
○○○ 위원	- 그건 아니고 이게 만약에 진짜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는데 위원회가 100인이 넘는 150명가량의 행사를 진행하는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 모르겠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당장 문제될 거 같거든요. - 그러면 차라리 이게 요즘에 이러한 지난번에도 코로나가 2단계가 됐을 때 숙의방식이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 그냥 온라인으로 하든가 아니면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하면 거의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효과와 동일하거든요? - 어떻게 하는 방식이냐 하면 분임토의는 오프라인으로 해요. 대신에 그러니까 공간을 나눠야죠. - 만약에 10개에 한 조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방을 11개의 방을 나누고 거기에 한방에 들어갈 수 있는 분임조가 한 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개가 한 방으로 들어가든지 그리고 전체 토의하는 거를 온라인 화상으로 하는거거든요. - 전체 우리가 해봤잖아요. 시나리오 워크숍 하는데 전체토론을 그냥 온라인상으로 하시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 그리고 분임토의만 각 그룹에서 빔으로 뿌려주거나 분임토의에서 공유하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오프라인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세미 방식의 온라인으로. - 근데 그것도 걱정되면 100% 온라인으로 하는거니까
위원장	- 아니 지금 그것만 명확하게 하죠. - 지금 저 공간이 600명이 들어갈 정도로 넓은 공간이라니까는 일단 중간에 막으면 그건 분명히 분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한 공간에 70명 한 공간에 70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100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맞는 겁니까?

전주시 관계자	- 그것은 위원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 그렇게 하시죠. 그걸 확인해주시고요. - 그다음에 이제 분임 나누지 않습니까? 아까 오늘 ○○○ 위원님 얘기대로 테이블 두 개를 합치면 그 남는 공간이 나온다면 문제가 걸렸을 경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전주시 관계자	- 또 하나는 식사 부분이 있는데
용역 수행기관	- 뷔페 식당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 웨딩홀이다 보니까 바로 옆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마련을 했습니다.
○○○ 위원	- 뷔페식이죠?
○○○ 위원	- 30분 단위로 정확히 시차를 두면 안되나요?
○○○ 위원	- 규정의 복잡함이 있을 거 같아요. - 왜냐하면 한 행사로 보는데 팀을 분리해도 총 규모가 100명 이상 이냐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용역 수행기관	- 웨딩홀은 대여하기가 힘들어요
위원장	- 규정이 있는 걸 봐서 제안을 좀 마련해서 얘기해 주시죠. - 자 그럼 그 다음 공론 설문조사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두 개죠? 사전, 사후라는게
용역 수행기관	- 아까 기획안으로 드렸던 파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앞쪽에는 뒤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 4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첫째 날짜 프로그램 안이 있습니다. - 12일날 토요일날 제가 오후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과정입니다. 일단 2시부터 6시까지 총 4시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 그래서 이게 시작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2차 조사 설명을 듣기 전에 그분들을 생각을 먼저 알아보기 위한 아무 지식 없이 그 본인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판단을 하는 거죠. 사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 그다음에 공론화위원장이 말씀해 주시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에 공론화에 어떤 식으로 이에 왔는지 추진 과정이나 이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그다음 부분은 사회자분께서 숙의토론회 안내 및 일정 과정을 거칩니다. - 처음에 그리고 그다음에 1세션에서 시나리오 발표를 하는데 처음에 전주시 도시계획기초 자료도 한번 위원회에서 설명해주시고요. - 그리고 지난번에 시나리오별로 대표 위원분 두 분씩 뽑았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각 시나리오별로 대표분들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 그에 대해서 논의 과정 특정 중심 약간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2세션을 들어가서 그때부터 분임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각 조별로 나뉘어서 그래서 시나리오에 대한 각 조별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질의응답 안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의 질문 이 부분은 위원회랑 사회자랑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최종적으로 첫번째 오리엔테이션 이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 자료집을 배포하는 걸로 해서 끝나는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 이게 12월 12일이죠. - 여기에 우리가 1차 조사하는 것은 1500명에 대한 조사 중인것을 1차 조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딱 보니까 그냥 이걸 시민 대표단 1차 조사로 명명하면 어떻습니까? - 2차 조사 3차 조사에 이러니깐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서 시민 1500명에 대한 조사는 전주 시민 공론조사고, 시민 대표단에 대해서 1차 조사 2차 조사 그렇게 용어를 쓰는 게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위원	- 원래 의미는 시민대표단의 참여단에 대해서 2차 조사를 한 것에 대해 맞기는 한데요. - 근데 의미는 맞는데 이거는 저희가 공론화 기법 중에서 공론조사라는 걸 선택한거잖아요. - 공론조사는 원래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이게 기본이예요. - 그래서 그냥 공론조사에 대해서 조금 알면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이거는 그냥 당연하다는 걸 인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이름을 다시 명명해서 하는거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그냥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이렇게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1차 조사는 이런 의미고 2차 조사는 이러한 의미다. - 상당히 중요합니다.
○○○ 위원	- 분명한 것은 공론조사 1차는 1500명에 대한 조사 그거죠? - 공론조사 2차는 시민대표단 120명에 대한 조사인데, 2차 조사는 아무런 설명을 듣지 않고 한번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숙의 전에 하는 거고 3차는 숙의 후에 조사를 하는 거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걸로 공론조사 1차 공론조사 2차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 1500명 조사한 다음 120명 조사를 할 때 조사 간에 상충되는 요소가 발생할리는 없나요?

○○○ 위원	- 지금 저희가 1차 조사하고 2차 조사 문항을 발채를 했기 때문예요. - 지난번에 저희가 계속 논의를 했던 게 1차 1500명 조사에서 시나리오 1, 2, 3을 A, B, C를 그대로 물을 거냐 이거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 현실적으로 1차 조사에서 시나리오 A, B, C 3개를 다 묻는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거다. -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가 설문 문항을 집어넣은 게 어쨌거나 저희가 시나리오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 의제라는 걸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 의제에 대한 거를 물어보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지난번에 공간구성과 방향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연관 검토 사항 3개에 대한 부분들을 한 문항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 그래서 1차조사에서는 시나리오와 무관하게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베이스가 됐던 의제 방향에 대해서 1차 조사에서 물었고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습시다. - 상충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2차 3차조사는 어차피 저희가 핵심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물어야돼요. - 그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 선호도 조사일지 아니면 평가할지 아니면 뭐 그중에 하나 고르는 건지 여기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될 문제고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다 짚아주고요. - 이게 그냥 우리가 생태도시 무슨 이렇게 3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그럴 게 아니라 스타일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리고 1에서부터 공간구성부터 연관 검토 사항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게 A, B, C 시나리오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정확하게 물어야하는 거예요.
위원장	- 일단은 그것은 나중에 또 논의토록 하고요. - 일단 지난번에 ○○○ 위원님 설명한 것처럼 저는 공론조사 2차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나리오에 대해서 묻는 것은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그것은 그냥 관심도, 두루뭉술하게 물어봐서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건 정확한 것 같습니다. - 다만 오늘 지금 논의해 주실 것은 12월 12일 시민대표단에 대한 프로그램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지금 이 두 분께, 대표자 각 시나리오를 대표자가 발표할 때 여기 시간은 각 10분이라고 했는데 발표 방법도 동일하게 해야 할 것 같죠. - 이분들한테 PPT를 좀 만들어서 발표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PPT를 작성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쨌든 저는 발표 방식을 동일하게 같이 하게 해야 한다. 시간뿐만이 아니고 그것도 조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가장 중요한게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얼마만큼 이해하는가. 경과, 토론의 내용 중요합니다만은 결국에는 그건 짧게 설명해서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각각의 시나리오가 얼마만큼 잘 전달되느냐 최종 이것의 내용을 어떻게 숙지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 시간적 배분입니다. - 두 번째는 설명 시간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이런 것이 과연 그 시간에 가능할 것인가 그거고 두 번째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발표자가 얼마만큼, 굉장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막 조합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뒤섞여 있잖아요. - 그래서 각 시나리오의 특징이라든지 각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을 한 마디 얘기하는 거죠. - 제가 B안에 여기에 설명하는 다른 얘기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에 대한 메시지가 약하지 않냐. 뭘 소리냐 우리는 일단 40~ 50% 기부채납 받은 다음에 총 개발 용량을 줄이면 상업시설 면적도 줄어드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일단 기부채납, 개발이익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게 여기 현재 문제는 꽤 있습니다. - 그러니까 시간적 양을 늘려주시고 PPT자료들을 사전에 발표자 두 분이 역할 분담이나 내용 협의라든지 발표 시안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불러들여서 충분히 준비되도록 하는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 일단 저도 시간을 좀 늘려야 하겠다 하는 것은 동의하고요. - 그리고 발표만 하게 하지 말고 이때는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도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니까 물어볼 게 있을 것 같아서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러면 시간은 한 어느 정도 드리는 게 좋을까요?
○○○ 위원	- 그런데요.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 말 그대로 시민들에게 공론화에 대해 이해시키는 게 더 중요하기도 하고요. - 왜냐하면 그분들이 왔는데 이 시나리오가 왜 여기에는 이거 밖에 없어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랑 다른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 그런데 일단 시나리오 워크숍 과정이나 이 시나리오 3개가 어떻게 도출됐는지를 이해시키는게 가장 핵심일 거 같고요. - 그래서 그 부분을 앞부분에서 충분히 설명하는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하는 게 둘째 날 거를 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둘째 날을 보면은 시나리오에 대한 대표 숙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대한 대표 숙의는 어쨌거나 둘째 날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거 같고 이러이러한 시나리오가 도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잖아요. 이분들이. - 이 공론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들이 또 엄청 많이 있을 거잖아요.

	- 오히려 시나리오 지금 이제 3개만 위원회에서 딱 던져줬기 때문에 더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거 같고 왜 이것만 나오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의 궁금점을 해소해 주는 게 첫날의 영향인거 같아요 - 그래서 저의 그냥 생각은 위원님이 왜 이렇게 시간이 짧게 시나리오에 대해서 충분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그거 하나 정확하게 의견을 다 담아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는지.
○○○ 위원	- 내가 2일 차를 내가 프로그램을 미처 못 봐서 그랬는데 2일 차에도 시나리오 발표가 있군요. - 그러니까는 구체적인 얘기는 이때 또 한 번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위원	- 2일차는 ○○○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 대신 말씀드렸듯이 사전 발표자들의 내용에 대한 부여, 사전에 대한 점검 어떻게 할지 별도로 이야기를 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위원장	-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PPT를 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어쨌든 같은 무게의 중심으로 해서 큰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정 이유, 공간 구성에 대한 선정 이유, 그다음에 그 연관 검토 내용에 대한 것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포맷을 주고 PPT로 10분 정도 이때는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랬고 뒤에 2차 프로그램을 안 봐서 간단하게 특징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다만 형식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고 저도 나중에 얘기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시간을 좀 정해서 그 세 분께 지난번 우리 ○○○ 위원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눴습니다. - 그래서 이분들께 한번 저희가 또 시나리오 발표 내용을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논의도 하겠습니다.
○○○ 위원	- 위원장님 그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까지 좀 포함해서 지난번에 우리 대표 발표자들이 제대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 두 번째는 발표하시는 분들이 양식이 비슷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탁월한 발표를 잘하시는 분이 화려한, 굉장히 독특하게 튀는 방식의 설명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사실 발표 패턴도 없고 거의 같아야 한다고 보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 두 번째는 이분들이 대중적인 발언을 하는데 설명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야 한다 해서 토론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여러 가지 공식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 저는 두 가지 1차에서는 각 10분 2차에서는 15분씩 배정이 되어있거든요. 1차 때 이거 했으니까 2차 때 안하고 2차 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 1차나 2차나 똑같은 얘긴 거고 그런데 1차 때 아까 말한 대로 10분 이야기하면 설명을 하면 끝나버리는데 2차 때도 저도 15분 말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전에 이분들이 말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다음에 가능하면 안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충실히 제공하는 거 이거는 저희 요즘 언택트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유튜브 내지는 방송 만드는 거거든요. - 아마 시청에 방송실도 마이크하고 카메라 이렇게 웃도는거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예를 들면 자기들의 시나리오와 안을 설명할 수 있는 우드락 절반짜리 두장, 그 안에 표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그림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 하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한 장짜리 A4 한 장짜리 표. 우리가 하는 시나리오 연관 검토 사항, 장단점 있는 거 하나를 만드는 것 하나는 그림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해놓으면 두 개를 만들 수 그림은 저희가 일관되게 비슷한 한 가지를 그려줘야 하겠죠. - 이렇게 두 개를 넣고 세 사람이 20분씩 그 스튜디오에 앉아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나리오 안에 대해서 딱 두 장이니까 자기가 하고 화면을 바꾸면 한 장짜리를 보여주거나 그림을 보여주거나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저는 이거 보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 이렇게 만들어서 각각 세 분짜리 영상을 하나 편집을 해서 그것을 카톡으로도 다 가능하잖아요? 카톡으로 확인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 - 조금 어렵겠지만 일이 늘어나는거 같지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만들어놓는 그런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합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시나리오 발표를 두 개로 나뉘었는데 그것은 괜찮습니까?
○○○ 위원	- 그런데 나눈 취지는 이거일 것 같아요. 1차 때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서 이러한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알려주는게 가장 중요할 거 같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합의를 받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1차의 목표라면, 2차에서 시나리오 발표자들이 설명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나오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냈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시나리오 워크숍을 하면서 장단점 평가도 했잖아요. - 그래서 우리 전체 참여자가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이런 장단점에 대한 의미를 두었다. 이런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아마 지금 결과 보고서에서는 너무 좀 약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들은 2차 본격 소개할 때 발표자들이 선

	정해서 우리가 엄청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추가 내용들을 2차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평가했던 평가 내용도 얘기를 해주고, 또 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고려된다라는 추가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기술 검토단의 추가 의견이 있으면 위원회 추가 의견보다는 저는 가급적이면 기술 검사단에 추가 의견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또 포함해서 정말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 3개의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라는 거를 충분히 참가단한테 알려주는 그 과정 2차의 정도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일단 그러면 1차와 2차의 시나리오 발표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누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	- 시나리오에 대해서 오티에서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발표에 의해 궁금한 부분에 대해 시나리오에 대해서 질의응답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 지금 보시면 이게 1세션이니까 1세션부터 2세션이 다 시나리오에만 집중이 된다. 다음 날 2차 할 때도 오전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머리속에서는 앞에꺼는 과정이고 뒤에것은 내용입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안 돌아갈거라고 생각해요. - OT 때는 말그대로 OT까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까지 얘기하고 실제 거기서 시민이 참여단들한테 질의응답을 받거나 의견제시를 하는 거는 시나리오 1안 2안 3안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앞에 이거 기능이었던 과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들 어떻게 풀렸는지 이걸로 볼 때는 분임 토의 자체가 시나리오와 안에 대해서 미리 사전 한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보니까 뒤에 1일 차랑 2일 차 오전이랑 이거 2번 하는건가요?
○○○ 위원	- 아니에요. 이게 질의응답에 대해 잘못되었어서 그렇지 여기에 전반적 관점의 질의응답이어서 시민 참여자들이 오면 되게 궁금해해요. - 궁금한 경우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걸 왜 해야 하느냐 그다음에 이거 하고 나면 이 결과를 전주시에서 그대로 할 거냐 엄청 궁금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누가 참석했느냐는 우리가 설명해도 또 물어봐요. -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질의응답은 아마도 그러한 궁금증, 내가 여기에 참여했는데 도대체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주시는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하면서 수용을 할 건지 뭐 또 작업에 대해 물어보겠죠. 그런 전반적인 걸 다 질의응답을 해야지. - 이 사람들이 가서 일주일 동안 소개하고 그다음에 내가 와서 열심히 숙의를 해서 의견을 줘야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과정이에요. - 그래서 이게 OT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OT가 잘못되면 그다음에 안 오거든요.

○○○ 위원	- 오히려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2세션 이후에 경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위에 나왔던 위의 시나리오에는 두번째 세션이 되는거고 두번째 세션의 결과를 통해서 3개의 안들이 나왔습니다 까지가 되고 다음이니까 이 1세션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 위원	- 그러면 2세션을 분할을 하면 될 거 같아요. - 여기는 그냥 시나리오 소개로 가고 전반적인 질의응답 참여로 만들면 될 거 같습니다.
○○○ 위원	- 그렇게 되야 될 것 같습니다. - 앞에는 시나리오 뒤에는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을 넣으면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어떻게 정한다는 거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위원	- 14시 35분부터 15시 30분까지가 그동안의 경과나 워크숍 전반 소개가 되는거죠.
○○○ 위원	- 그게 원래는 4시 35분에서 14시까지 50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시나리오 워크숍 내용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 여기를 20분으로 하고요.
위원장	- 잠깐만 20분으로 한다는 게 지금 거기에 공론화의 이해와 추진 경과를 거기에 그렇게 하는 거죠?
○○○ 위원	- 저는 시나리오 발표원을 아까 말하는 이 날 10분 그다음에 15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대표들이 발표하는 게 아니고 공론화 추진 경과에서 거기에서 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든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를 시민들에게 해주지 말고, 통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시간이 여유가 좀 많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그래서 저도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이때 시나리오 발표는 저희 공론화위원이 하게 하고 2세션 둘째 날 발표만 대표자가 하는 것은 어떠하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	- 그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 시나리오 발표는 대표자들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저희가 위원회에서 추진 경과와 시나리오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다. 이런 순으로만 이야기를 해주고 내용의 발표는 당사자들이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 여기 앞에서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안에서 그래도 한 번 더 이 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아 시민들은 이런 걸 보고 궁금해 하는구나 그분들이 준비해 와서 그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나리오 소개는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	-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의의 없습니다. - 소개를 좀 정리해주시죠. - ○○○ 위원님이 첫째 날 12월 12일 내용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위원	- 공론화에 이해와 추진 경과에 대해서 그동안 공론화가 진행됐던 거랑 그다음에 추진 경과에서 시나리오 워크숍이 어떻게 진행됐고 시나리오 워크숍이 뭐고 그래서 시나리오 워크숍 결과 뭐가 만들어졌고 누가 참여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위원장	- 그러면 공론화의 이해 및 시나리오 워크숍의 추진 경과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20분으로 늘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휴식하고 기초 자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그대로 10분으로 가는 겁니다. - 각 10분으로 가는 거죠.
○○○ 위원	- 그다음에 각 조별 분임토의하고 여기를 나눠달라는 거예요. - 제 2세션을 시나리오 발표하고요. 저기에서 시나리오 발표하고 분임토의를 묶어주시고요.
위원장	- 시나리오 발표 및 분임토의
○○○ 위원	- 네. 그걸 1세션으로 묶어주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별도 세션으로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질의응답은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론화 전 과정, 시나리오 워크숍에 관한 과정, 전체적인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시간으로 만들자
위원장	- 자 그렇게 정리됐는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 위원	- 어쨌든 저는 오리엔테이션에 보면 자료집이 앞부분 여기서 설명이다 되는 일이잖아요. - 지금 여기 보면 공론화 이해 및 배경, 공론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든 다 얘기가 되고 최종 제시된 시나리오 3안까지가 제시가 되고 그걸 알고 이분들이 이제 가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 위원	- 그 일 지금 이 유인물 제 1세션 전주시 도시계획 기초자료 설명 이거 할 때 해당 부지에 관련되었는지는 도시계획 및 기초자료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체를 하면 관심도 없고 지금 해당 부지에 대한 지금 도시계획 이걸 해야지, 전체적인 걸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지금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당 부지에 전주시 도시계획 및 기초자료 이것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 그렇게 되면 20분이 제가 생각하는 15분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요? - 위에서 공론화 이해 및 추진 경과를 20분으로 늘렸으니까 5분을 여기서 빼버리고, 지금 각 대표들이 10분씩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시간이 부족할거 같고 10분 이야기하고, 그런데 PPT 자료는 시에서 일단 일괄로 작성할 것 같아요. 일괄로 작성해서 형식이나 포맷이 동일할 거예요. 그러면 피터 자료를 시민대표들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걸 동영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나와서 할 것인지는 결정하면 되고요.

	- 그리고 각 조별 그리고 제2세션의 분임토의를 1세션에다가 합치기로 했으니까 이때의 조별로 나뉘지는 것만으로 인해서 조별로 나눌 때 공간이 지금 필요할 거 같아요. - 지금까지는 위에서부터 쪽 내려오면 120명이 한 공간에 있었어요. 한 공간에 있다가 넓게 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 10개 조로 나누기도 했죠? 10개 조입니다.
○○○ 위원	- 10개 조가 한 공간에 10개가 이렇게 모이는 건가요? - 이게 그러면 한 공간에서 좋습니다. 조별토의 하고요. - 그 밑에 질의응답은 전체 뒤에 모여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까? - 120명이 전체 모여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조별 기초 토의를 할 때 물어볼 사항을 거기서 도출을 해가지고 조별로 하나씩, 하나씩만 이렇게 물어도 10개 질문이 나오니까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되니까요. - 제 의견은 그건데 아까 논의 및 3개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10분 정도 가지고 그게 되려나 모르겠다.
○○○ 위원	- 그거는 또 2차가 있으니까요.
○○○ 위원	- 여기서 말씀하시는게 1차 사전교육 오리엔테이션에서 분임 토의가 불가능하대요.
○○○ 위원	- 저는 차라리 이게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 위원	- 분임토의를 안하면 참여율이 떨어져요.
전주시 관계자	- 강당이 조금씩은 떨어져 있어요. - 일 층에 보면 그냥 가운데 의자가 조금씩 떨어져 있고 2층에도 3개로 나오는 거죠. - 6개는 좀 소리는 좀 들리지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솔직히 부족하고 한다면 이제 상임위 위원회실 빌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1, 2차 때는 시청 강당을 빌리기 때문에 분임 토의하기가, 강당에서 분임토의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알겠습니다. 저기 ○○○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 여건이 안되면 못하는 거죠.
위원장	-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의 공간을 빌려야 할 텐데 빌릴 가능성이 있나요?
○○○ 위원	- 근데 이게 1차 2차 나뉘서 할 경우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게 참여율이에요. - 1차에서 나왔는데 그냥 별거 없네 2차에서 안 나와버리면 그건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위원회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1차의 분임 토의를 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 그러니까 모더레이터 분들이 어떻든 간에 그분들과 릴레이션십으로 만들어서 2차에 반드시 소제곱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목적인거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 그래서 1차에 그냥 분임 토의를 넣은거고 실은 이게 분임 토의가 1차에서 잘 그대로 잘되는 부분은 별로 여기서 크게 기대할 수만은 없어요. -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그런데 여기에서는 진짜 라포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거 거든요.
위원장	-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쭙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다라고 한다면 분임토의를 여기에 1차 때 어쨌든 하는 게 좋다. - 2차 때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면 의회를 빌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의회를 빌릴 수 있는지 금요일날, 그러면 좀 빌리는 걸로 하고 10개조를 나누는걸로 하죠.
전주시 관계자	- 의회가 빌리면 한 6개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 그리고 강당을 좀 활용해서 4개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거 같고요.
○○○ 위원	- 4개 정도는 강당에서 하고 6개조는 의회에서 하는건 어떨까요?
○○○ 위원	- 4개조를 시청 회의실 쓸 수 없어요?
전주시 관계자	- 지금 참고적으로 2단계 격상이 됐다고 해요. -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되서 모든 행사나 이런 거 다 취소라고 일정을 아예 아직은 저도 확정이 안 되는 거죠. - 알아보라고 그랬거든요?
위원장	- 그런데 지금 2단계가 되더라도 100명에 대해서는 2단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주시 관계자	- 규모에 상관없이 아예 취소예요.
위원장	- 그러면 만약에 2단계가 되어서 취소하라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로 하고요. - 일단 진행하는 원칙 하에 그러면 의회에 6개 공간이 나오는거죠? 그리고 강당에서는 4개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죠? - 그러면 아까 우리 ○○○ 위원님이 그러셨듯이 저도 분임토의를 하지 않고 넘기면 어떠냐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잠깐만이라도 분임토의를 하는 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 그러니까 분임토의를 여기 1차 때 하도록 하고 전주시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날 분임토의 시간을 갖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 그러면 이 문제를 아까 우리 ○○○ 위원님이 얘기하신, 일단 그러면 12월 12일날도 발표도 하고 그 둘째 날도 대표자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두 내용이 좀 달라야 된다 내용이 달라야 된다 두 번째 때는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기겠죠.

	- 그러면 ○○○ 위원님이 ○○○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미리 좀 작성을 해서 이걸 사전에 알려 발표를 하게 하고 알려주도록 하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좀 할 수 있습니까? - 예를 들면 스튜디오를 좀 빌려서 부를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 위원	- 그런 장비나 지원받을 수 있는 요소는 많거든요. - 그건 걱정이 아니고 다 있으니까 장비나 이런 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 ○○○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 위원	- 어떤 양식으로 다 할 것인가 - 이걸 좀 여기서 빠르게 짚고 넘어가야 할거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 위원님 첫째 날 하는 내용하고 둘째 날 하는 내용이 좀 달라야 하는데 첫째 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둘째 날 하는 내용 중심으로 짚으면 되겠죠. - 그러니까 저는 첫째 날은 피피티로 하기로 하고 둘째 날에 대한 상당히 좀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서 알려준다 이게 그 말씀이지않아요. - 그러면 그걸 짚는 것은 별 문제는 없고 장비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그게 될 문제가 없다면 저도 뭐 짚어서 미리 알려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 위원	- 첫째 날에도 동영상으로 전체 모인 가운데서 짜주고요. - 그래서 미리 그 자료를 만든다면 그분들에게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미리 보내주는 것도 되고요.
○○○ 위원	- 첫날도 그분들이 발표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 영상은 보조자료인거고 그니까 1차때든 2차때든 그분들이 발표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진짜 20분도 된 이야기를 하기에 시간이 적거든요. - 핵심적인 것들만 이야기를 하되 영상을 통해서 그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주겠다.
○○○ 위원	- 영상은 별도로 홍보자료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링크로 문자 써주면서 보실 분들은 볼 거 같아요.
위원장	- 그러면 그러면 1차 때 발표 내용을 좀 정하죠. - 1차 때 발표 내용과 2차 때 발표 내용을 우리가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1차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달라 2차 때는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1차 때 발표 내용과 2차 때 발표 내용을 저희들이 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	- 여기서 잠깐 고민해야될게 저희가 지금 각 A, B, C 3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각 시나리오 팀들이 합의해서 사인해서 가

	지고 있는 것은 비전하고 제약 조건 연관 검토 이 두 줄이 다거든요. - 그리고 장단점은 그 안에 대해서 각각에 다른 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A조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저희는 이런 비전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이런 걸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려고 발표 끝나는 거지 이 사람이 우리 조의 장점은 이렇고 단점을 이렇고 그 조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 시나리오를 만든 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다고, 다른 방법을 해야지 이게 뭐 나와가지고 장단점까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나리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지 않아요. -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워크숍 최종 보고서 안에 나와 있는 61페이지가 제가 보기에 공식화된 시나리오입니다.
○○○ 위원	- 공식화된 시나리오를 1차에 하고요. 2차에는 예를 들어서 미래상이 첫 번째 미래상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미래상이 나왔을 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정해서 줄 거예요. 지금 이것은 초안이고요. - 초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금 충분한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로만 이게 나왔을 때 나왔던 의견들이 여기가 엄청 많았었잖아요. - 그런 의견들을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해서 배우는 그 과정을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당사자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선호를 어필을 할 수는 있는거 아닐까요?
○○○ 위원	- 할 수는 있는데 제 말은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도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제약이 범위 안에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 이 범위 안에 있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40%를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이 안에 들어있거나 제약되어 있는게 아니다. - 40%에 대해서는 A 그 구성 누군가의 의견이었다까지는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40%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 위원	- 그래서 첫날에 핵심은 그냥 이거는 어쨌거나 대표자의 의견이 아니라 그 팀의 합의된 의견이잖아요. - 첫날은 객관적으로 시나리오가 이거다라고 알려주는게 목적인거 같고 이틀에는 어쨌거나 두번째는 설명이 가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은 두번째 날 하시라는거죠.
위원장	- 첫째 날 시나리오에서는 미래상과 공간 구성에 대해서만 설명하게 하고 둘째 날에는 연관 검토 및 장단점까지 다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 위원	- 저는 첫째 날도 연관 검토까지 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미래상, 공간구성, 연관 검토사항 이게 첫째 날도 하고 둘째날도 하는 건데요. - 둘째 날은 이걸 설명을 하든 주거시설, 금융타운 뭐 어떤거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이걸 뭐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첫째 날도 여기 대로 미래상, 공간 구성, 연관 검토 사항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라. - 1. 미래상 2. 공간 구성 3. 연관 검토 사항 - 이것을 가져다가 PPT 10장 뒤 하든지 PPT 한다 이것은 정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그 다음 날에 또 장단점까지 다 얘기를 하라. - 그렇게 조건을 다는 걸로 하죠.
○○○ 위원	- 그런데 PPT를 발표자가 만들어요? - 행정에서 일단 이것을 요약해 봐야 할 것 같아요.
○○○ 위원	- 요약해서 만들되 이 발표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 이 동의를 구해서 이 내용이다 하는 것은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발표자에게
○○○ 위원	- 저희가 정하기보다는 대표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왜냐하면 저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의견을 받을 수 있거든요. - 우리가 만들 건데 왜 위원회에서 만들어주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괜히 위원회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 위원회에서는 발표 자료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몇 페이지 내로 할 건지 어떤 포맷으로 나올 것인지 형식만 제안을 해주시고요. - 발표자들이 어떤 본인들이 직접 할 건지 아니면 나는 대표 시킨 것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내가 왜 발표 자료까지 만들어야 되냐 이러면 지원을 해주든지 이렇게 가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일단 저는 양해를 구하신다면 형식, 제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포인트까지 폰트까지 조금 정해줄 필요가 있다. - 폰트, 체 이런 걸 정해서 하고 전체 PPT 몇쪽 될까요 10쪽? 5쪽? 10쪽도 많을 것 같은데. - 시간은 저는 분량을 줄여주는 것이 저쪽에서 만들어도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5쪽으로 하죠. - 어떻습니까? PPT 저기 표지까지 합쳐서 5쪽
○○○ 위원	- PPT 분량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제목까지 해서 3쪽 어떨까요?
○○○ 위원	- 대표들의 동의를 구한다고 했는데 제가 대표라고 생각하면 나와서 발표하는 것도 키찮은데 PPT까지 만들라고 하면 매우 키찮은 일인것 같기도 해서 형식이나 이런 게 좀 동일하게 되는 것이 필요할 거 같아요. - 정말 잘만들든 못만들든 해서 그냥 행정쪽에서 내용상 어떤 걸 넣어주면 좋겠는지 물어서 내용적인 거는 동의를 구하고 형식쪽에서 통일하는것이 어떤가 싶네요.
위원장	- 그러면 만들어서 발표자한테 동의를 구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 먼저 동의 구한다면 이 내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행정에서 우리 도와주는 것으로 발표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역 수행기관	- 첫날 일정 관련해서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단 워크숍 최종 보고서는 확정본이 아니고 초안입니다. 그래서 조금 바뀔 여지가 있고요. - 그걸 기준에서 만든 거고, 분임토의는 토의라기보다도 조별로 모여서 아이스 브레이킹, 그래서 관계 형성, 라포 형성이 목적입니다. - 조별로 모여서 다음 19일 날 나올 수 있게끔 끌어올릴 과정이라고 보이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안은 다음 날 그다음에 2회 때 하는 거고 조금 간략하게 지나면 언급하는 정도만 거칠 거고. - 약간 빠진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여는시간에 참여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촉장을 공론화위원회 명의로 아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진행할 거고, 또 빠진 게 자료집 배포 마지막 부분에 자료집 배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각자 한 분께 자료집 배포하는 걸로 이게 빠진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PPT는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저기 ○○○ 위원님 일단 3분 대표자분들이 발표를 해서 그걸 공유하기로 했으니까는 그것을 한번 좀 ○○○ 위원님이 진행 좀 한번 해주시죠.
○○○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진행 패턴이랑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하고 좀 논의해서, 이 지역 상황은 잘 모르니까요 그렇게 한 번 같이 좀 해주시면.
용역 수행기관	- 시나리오 대표자는 두 분씩입니다 여섯 분입니다.
위원장	- 그러면 2차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논의하는 과정에 나왔습시다마는 - 2차에 12월 19일도 한번 보시고 얘기를 나누어주시죠. 이대로 괜찮을지 - 그리고 이 문제는 해소된 것 같습니다. - 지난번 저희 13차 위원회 때 시나리오 워크숍을 진행했던 모더레이터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 우려를 표하셨는데, 아마 시에서도 노력해주고 서로 노력해서 시나리오 워크숍에 진행했던 분들 모더레이터가 120분 시민 대표에도 도와주는 것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주시면 좋고요.
용역 수행기관	- 일단 지난번에 진행하셨던 사회자분 김상규 대표님이 진행하실 거고요. - 참여하셨던 모더레이터 위주로 하시고 조금 추가적으로 추가될 분 들은 추가될 예정입니다.
○○○ 위원	-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계속 언어의 유희 같은 공론화가 숙의 공론조사에 들어갔는데 계속적인 숙의의 과정이라고 우 기기에는 시민들이 납득이 잘 안간다는 거죠. - 공론조사라는 걸 했으면 조사에 대한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 그러면 이 3개 안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명히 선호도가 존재할거 아니에요.

	-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 그런데 이걸 선호도 조사도 아니고 설문조사도 아니고 120명을 뽑기 위한 숙의 과정이 하나라고 하기에는 저도 스스로 설득이 안되는데, 이게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뭔가 저희끼리의 정의나 합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 위원	-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1500명에 대한 조사부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1500명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이런 일은 다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는, 저는 1500명에 대해서 가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120분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분명한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 위원	- 여기는 120명이 너무 작잖아요. - 성별 지역별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비율을 확장한 것이 1500명이잖아요.
위원장	- 그런데 이제 저도 1500명만 그러려면 1500명을 대상으로 어떤 설명이 필요했거든요. - 그런 다음에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는 게 없어서, 저는 120명에 대한 조금 숫자에 대한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120명에 대한 숙의 과정 전체적인 어떤 설명을 듣고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숙의 과정을 통해서 120명의 의견은 굉장히 존중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 위원	-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120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1500명을 공론조사를 한다면 이런 질문도 사실 필요 없어요. - 시나리오를 알고 있느냐 1번 2번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가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죠.
위원장	- 아니 이것은 지금 현재 120명에 대한 조사예요. - 1500명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헛갈린 게 지난번에도 사전 사후라고 할 수 있는 사전은 1500명이고 사후는 120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용역 수행기관	- 사전은 2차 조사고 사후가 3차 조사입니다.
위원장	- 그러니까 사전이 여기서 얘기하는 사전 조사는 2차 조사고 사후가 3차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2차 조사, 3차 조사입니다. - 이미 1500명에 대한 조사는 지난번에 의견 주셔서가지고 종합된 걸 지금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시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 한가지 질문은 1500명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도 1500명을 조사하는 거는 120명을 추려내기가 연령별, 성별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 그런데 제가 지금 마지막 사전 설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도

	이 세 가지 시나리오의 포션이 나오는 정확한 비율은 아니래도 어떤 한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모여버리면 120명의 대표성이 한쪽으로 쏠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용역 수행기관	- 1500명에 대해 지난번에 초반에는 시나리오를 갖고 계셨다가 마지막 6개의 항목은 시나리오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 그냥 주요 어떤 걸 위주로 가야 하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위원	- 그래서 처음에는 시나리오를 물었다가, 이게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완전히 바꿔 버렸습니다.
○○○ 위원	-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 지난번 제가 질문을 바꾸자고 한 당사자인데, 제일 처음에는 3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좋냐고 물어봤었어요. - 원하는 3개 중에서 어떤 것을 좋아하냐고 또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 분석 결과가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 어떤 제 1안이 60%가 나와버렸다 이러면 상당히 이 숙의단에서도 논의할 때 이게 구속력이 돼요. -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력을 줄이자 자유롭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도 조금 부담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얼마나 이러한 1 시나리오가 얼마나 바람직한지, 2 시나리오가 얼마나 바람직한지, 3 시나리오가 얼마나 바람직한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자. - 그러면 이게 점수로 나와버리니까 퍼센테이지가 아니지요. - 그러면 우리가 또는 숙의단에서 구속력이 좀 많이 약화가 되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 그런데 실제로 지금 조사를 하실 때, 저도 이제 구체적인 설문을 안 봐서 그러는데 어떻게 되어있는 건가요?
용역 수행기관	- 아니요. 처음에 질문드렸던 게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걸 물어보고, 그래서 모르는 분한테는 설명드렸고요. - 두 번째 질문이 말씀하신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위원장	- 잠깐만 지금 이 내용만 한번 보시죠. Q1부터 보시죠. - 서부신시가 저기 고려해야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렇게 물었습니다. - 저렇게 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그런데 지금 아까 몇 분 조사했다 그랬죠?
용역 수행기관	- 지난번 발표 기준에는 800분 정도 되는데 주말에 더 했을 겁니다. 아직 집계가 안되서

위원장	- 그랬더니 저런 거에 대한 좀 분석에 힘듦이 있어요? - 그런데 바이어스가 그런데 위원님 시나리오를 물어보니까 바이어스를 없애고 120분을 조율할 방법이 있는데 또 그걸 물어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거 같아서
○○○ 위원	- 아까 말한대로 5점 척도로 물어보면 굳이 그게 우리는 1, 2, 3 저기로 알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면에서는 완화되는 면이 있어요.
위원장	- 저렇게 해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 위원	- 시나리오 안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고려요인을 조사했기때문에요. - 고려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나리오 안에 선호 어떤 것이 몇 퍼센트 나온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요. - 저 정도 되면요. 대개 보면 두 가지 성격으로 했기 때문에, 복수 응답으로 했기 때문에, 골고루 나올 것 같아요.
○○○ 위원	- 일단 저는 저기 보면 4번 5번 6번이 사실은 시나리오의 어떤 방향인거 같고 1, 2, 3이 연관 검토 사항인거 같아서 그래서 저거를 한 반절 정도 진행이 됐으면 어느 정도의 구성을 저희가 바로 알 수는 없나요?
용역 수행기관	- 지금 분석하기는 좀 어렵죠.
○○○ 위원	- 골고루 나왔을 겁니다.
위원장	-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사가 나간거니까. 그대로 진행은 됩니다. 진행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만은 ○○○위원님이 좀 양해해주시죠.

#. 공론조사 설문조사(안) 검토

위원장	- 그러면 시나리오 워크숍의 진행에 대한 것은 저희들 결론 내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 그럼 두 번째 안건으로 2, 3차 조사 내용에 대해, 먼저 사전이라고 되어 있는 2차 조사 내용에 대해서 안건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 Q1 설명해 주시죠.
○○○ 위원	- Q1, ○○○ 위원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장	- Q1 넘어가고 Q2 똑같은 건가요?
○○○ 위원	- 선택한 이유가 뭐냐고 이거 다 잘 안해요. 어려워요.
위원장	- 이거는 120분에 대한 조사입니다
○○○ 위원	- 이유 뭘 쓰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이유까지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조사만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 위원	- 그리고 여기를 5점 척도로 하죠. - 그냥 굳이 여기를 하나 뽑아야 하는건가?
○○○ 위원	- 아까 그건 ○○○ 위원님한테 그건 제가 물어볼 내용이에요. 위원님이 아까 분명히 세 안에 대한 선호 비율을 제시해야한다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 지금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사전 조사, 사후 조사에서 분명한 선호 비율을 밝혀야 됩니까? 도출해야 합니까?
○○○ 위원	- 공론조사 참여하신 분들 정도면 이유 한줄 정도는 쓸 수 있을 거 같거든요. 120명이 오늘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요. - 그러면 사전에 자료도 다 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선택한 시나리오를 내가 골랐다는 것에 대해 한줄 정도는..
위원장	- 일단 선택한 시나리오의 이유를 쓰는 것은 그렇고, 위에 이걸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
○○○ 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시나리오를 어떤 방식이든 도출하는게 목적이지만 그 결과에 표현 방식에 따라서 이거를 수용하고 또 협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론부터 거꾸로 이렇게 보면 3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지,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5점 척도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그중에 다수가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지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시나리오조차도 전주시민의 의견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면 3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중에 하나가 시민의 결정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 그렇게 함으로써 5점 척도를 하면 나중에 자광하고 전주시하고 테이블에 앉았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많지만 나머지를 또 고려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 - 그래서 이렇게 셋 중에 하나보다는 3가지 안에 대해서 5점 척도로 논의해보자.
○○○ 위원	- 비슷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시나리오가 나왔던 시나리오의 풀버전을 제시드립니다. 미래상, 공간구성, 연관 검토사항 풀버전을 제시하고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3개잖아요? - 3개에 대해서 지지도 이런거에 대해서 물어보는건 어떨까. - 선택하는 이유는 각각에 대해서 물어보기보다는 나중에 별도로 문항으로 이 시나리오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고려한 건 뭐예요 이렇게 별도로 문항을 넣는게 낫지 않을까.
○○○ 위원	- 한 페이지 충분하게 해준다고 본 것도 있고요. 공간 창출 이건 비전이잖아요. - 비전 밑에 공간 구성도 있고 공간 구성 옆에 연관 검토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페이지에 다 놓고 밑에다가 5점 척도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렇게 물어봐야해요. - 그러다 보면 페이지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비전당 한 페이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 위원	- 연관 검토사항까지 다 제시를 해주는 건 어떨까요?
○○○ 위원	- 원래 시나리오라 하면은 저희가 시나리오를 만들 때 미래상과 공간 구성과 연관 검토 사항을 한 풀 세트가 시나리오를 연출하거든요. - 그래서 풀 프로젝트를 맡아주고 이 시나리오가 A라는 시나리오인데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하느냐 그렇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 위원	- 지금 미래상과 공간 구성은 대개 균형이 맞았어요. - 내용들의 길이가 봤는데 연관 검토사항은 지금 A, B, C가, C안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B안은 그냥, A 안은 조금이에요. - 이것도 사실 조정해서 균형이 맞아야 해요.
○○○ 위원	- 근데 그거는 어쨌거나 지금 각 시나리오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 위원	- 이 내용을 다 들어가게 하는 건데 좀 그걸 지금 맞춰줘야 해요.
○○○ 위원	- 맞는 말씀이신 것 같긴한데, 이게 예를들어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제출한 사람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러이러 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게 반영이 안되어 있구나 이러면서 문제 제기할 수 있거든요.
○○○ 위원	- 사람들이 길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그게 중요해 보여요
○○○ 위원	- 그런 측면에서 항목자체가 응답자들에게 그냥 필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임의대로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하다.
위원장	- 어느 정도는 완전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까 도시 기반 시설 주차난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 이랬을 때, 거기에 1, 2, 3이 있는데 거기를 갔다가 예를 들면 황반산터널 확충 등 이렇게 해서 줄이면 상당 부분 좀 이렇게 막 내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	- Q3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안 읽어봤는데. 어쨌든 상업시설이 중요해 보여요. 상업시설은 몇 줄이잖아요. - 이런 생각에 일반인들은 설문을 받을때 상업시설이 웬지 중요하니까 많이 썼나보다 이런 생각으로 응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하죠. - 저기 1번 Q1은 일단 전체적인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슷하게 어떤 분량을 좀 맞춰주도록 노력을 하되 미래상 공간 조성 62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그것을 읽어보고 5점 척도로 하게 한다.

○○○ 위원	- 이런 걸 제시해 주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다만 사전과 사후를 나누는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게 숙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미래상, 공간구성 이런 것들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의견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그게 아닐까요? - 그런 의미에서 사전은 지식없이 보여줄 수 있지 않나. - 사전에 저희가 알게 되는 건 사전부터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것은 정보를 주되 숙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 팩트만 보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위원	- 네. 맞습니다. 2차와 3차의 차이네요. 2차를 조사했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설문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 물론 전주에 지금 대한방직 부지가 이슈이기는 하지만 그냥 내가 피상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그냥 내가 깊이 고민 안 하고 피상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시민참여단 시나리오를 3개 쪽 다 읽어보고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지지할 수 있어라고 해서 의견을 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어쨌거나 이제 참여자들이 참가를 했으면 내가 참여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숙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숙의를 해서 이제는 내생각이 숙의잖아요. - 그러면 내가 판단하기에 처음에 그냥 몰랐을 때는 예를 들어서 1번을 훨씬 지지를 했는데 내가 진짜 공부를 해보고 이야기 해보고 고민도 해보니까 나는 1번이 내키지 않아 의견이 변화하는 것을 보는거죠.
위원장	-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보여주고 5점 척도 하는 것으로 Q1은 간다. - 자 동의하시죠?
○○○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금 이제 세 가지 안에서 5점 척도에서 하시는데 저는 이제 현재 질문을 보게 되면 나중에 질문의 결과가 이렇게 5점 대로 했을 때 자광에 대해서 개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좀 발효되었다고 봐요. - 지금 현재 이걸 보면 현재는 어떤 안이 좋은가에 대해서 그 안을 선택하는데 집중하고 있지 우리 이제 그 시민들이 그쪽에서 참여했는데 그렇지만 나는 이득이 있을 수도 있고 - 여기 설문 3가지 안이 있으면 이 안에 대해서 5점 척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관 검토사항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해 봐야겠죠. -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넣어서 나중에 이 결과가 오픈되었을 때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같이 협상을 할 때 백데이터 이런것들이 있어야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 어느 정도 120분에 대한 검토 교육을 이런 걸 같이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한번 나중에 물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 위원	- 제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뭐를 걱정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 시나리오 워크숍 할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 분명히 시나리오 워크숍 때 우리가 이것을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들이 전부 다 기술적인 것까지 다 해서 시나리오를 디테일하게 세분적으로 쓰기에는 이 3일 간은 워크숍으로는 어렵다. - 그래서 나중에 시민참여단에서 어차피 그때는 조금 더 설명하고 설문 방식인 것은 물어보고 싶은 걸 구체화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예를 들어서 1번 시나리오의 연관 검토사항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물어봐주고 시민 다수가 100명이라는 시민이 원하는 거잖아요. - 그래도 대표적인 선정된 100명이 원하는 거니까 어찌보면 지금은 그거를 지금 전주 시민을 대표한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그 연관 검토사항을 나중에 협상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나리오 만들 때 연관 검토사항에 그냥 구체적으로 안 하고 방향성 정도만 얘기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시나리오 원칙에 그래서 계속 언급을 했잖아요. - 나중에 연관 검토사항에서는 위원회가 의결로써 뭔가 수정 보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저희가 워크숍 참여자들에게 설명을 했잖아요. - 그러려면 지금 그 연관 검토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진짜 고민하셔야 하고 저는 지금부터가 정말 여기에서 중요하다 생각해요. - 지금 이 공론화는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문 초안을 만드셨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방직 부지 관련해서는 필요한 사항들을 여기다 녹이셔서 설문할 문항을 뽑아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작업에 지금부터 제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가 가장 중심인 건 그래도 3개 시나리오를 묻고 그다음에 지금 연관 검토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 그런 부분들은 설문 문항을 어떻게 만들 건지를 고민하셔서 그거를 안에다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시나리오가 채택되더라도 위원회 권고안에 시민들은 이런 부분들을 방향성을 원했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 두 분 의견 동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은 3차 설문조사 때 구체화시키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그러면 일단 Q1에 대해서는 여기에 61페이지에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5점 척도로 물어본다. 그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 그러면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야 할까요? 이 정도는 간단한 게 한 줄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유에 대해서도 쓰게 하자 하셨는데 5점 척도를 물어보니까 저도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유에 대해서는 빼는거로 가겠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일단 2차에서 이렇게 가고 숙의를 한 다음에 3차에서는 3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 위원	- 예를 들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 마음속에 1 안은 50% 2 안은 30% 3 안 20% 인데 하나를 고르라는 얘기는 2 안의 30% 3 안에 대한 20%를 삭제시켜버리는 거죠.
위원장	- 그러면 Q2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	- Q2는 1차 조사에서 제시했던 6가지 내용이죠. - 6가지 내용을 5점 척도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사하는 것이 저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아까 ○○○ 교수님 얘기도 이제 전부 일단 그건 상업적인 데 많이 치우쳐져 있으니까, 아까 1차 조사에서 6가지 제시를 했던 거 있죠? 그게 아주 운영적으로 잘 되어져 있어요. - 그래서 그 여섯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중요성을 한번 여기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 1차 조사에 Q2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묻자. -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위원	- 왜냐하면 1500명 샘플의 설문 항목이 120명 샘플하고 한 번 근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 위원	-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 나왔던 지금 연관 검토사항을 보다 보니까 크게는 3가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정리해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1번과 2번이 싹 풀어가도록 하는 게 더 나올 거 같다.
○○○ 위원	-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에 관련된 부분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자, 기부채납 이런 부분들을 문항화 시켜서 2번에는 연관 검토까지 물어봐주는게 낫지 않을까. - 예를 들면 이걸 현장에서 2차에서 물어봤을 때 효과라는 게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샘플이 비슷했다. - 120명, 1500명의 샘플이 비슷하다는 성별 연령 비율에 대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대표성까지 여기서 확보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에서 대표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사실 애매모호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 지금 위원님은 지금 설명해 주신 이유로 1차 조사 때 6개까지를 묻는 것보다는 그냥 연간 검토 사항에 대해서 묻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주셨습니다.
○○○ 위원	- 아까 1차 조사에서 했던 6개 중 3개는 연관 검토사항에 관련된 거고요. - 3개는 지금 시나리오 안으로 관련된 거예요. 셋, 셋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시나리오에 관련된 3개의 문항은 빠시되 연관 검토사항에 관련된 3개하되 3개를 5점 척도로 물어보는 것은 너무 단순해서, 각 연관 검토사항에 대해서 두 개정도 세부 내용으로 해서 두 개, 두 개, 두 개 한 6개 정도는 될 거예요. - 그러면 그렇게 뽑아가지고 6개를 뭘로 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찾아야 하겠죠. 6개의 연관 검토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5점 척도, 7점까지는 지금 7점을 할까요.
위원장	- 7점으로 갑니까? 5점 척도면 충분합니까? - 그러면 연간 검토 사항 중심으로 이 문항을 만들고 그리고 5점 척도로 한다. -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고쳐야 할 겁니다.
○○○ 위원	- 저도 연관 검토를 중심으로 가는건 찬성인데 - 그러려면 Q4가 공간의 구성이 있거든요 - 그게 앞으로 나오고 그다음이 연관 검토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 질문의 순서는 조금 있다가 하고 Q4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	- 공간구성이 들어가는데 굳이 시나리오 들어갈 때마다 연관 검토하는 거보다는 공간구성을 먼저 3가지 미래상 공간구성 연관 검토 이런거니까
위원장	- 그러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 Q3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지난 2개월 간 각 내용을 얼마나 접하셨습니까?
○○○ 위원	- 내용을 보도하고 방송프로그램이 같이하게 되는건가요? - 언론보도는 신문? 방송 프로그램도 언론 아닌가요?
○○○ 위원	- 1, 2번을 합쳐서 방송 프로그램 및 언론 보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이거는 기본적인 사실 시나리오 선택이나 시민들의 의견으로 확인하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대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알고자 하는데 이것까지 굳이 항목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위원장	-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물어보지 말고 뒤로 돌리고 그다음에 1, 2번을 합쳐서 '방송 프로그램 및 언론 보도'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4개로 하되 이것은 5점 척도를 할 필요가 없다.

○○○ 위원	- 그리고 기간이 6개월로 한정 되었었어요. - 3개월이나 6개월로 2개월 전에 들었는데, 6개월 이내에서 6개월 정도나 1년이나 3개월이나 기간을 좀 확장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 6개월 정도로 하죠. 6개월 정도 6개월 전에 6개월 동안에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Q4로 가겠습니다
○○○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그게 시설의 순서를 주거시설을 좀 앞으로 당기고 상업시설을 좀 일반적인 순서로 좀 맞췄으면 어떨까 하고. -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기호를 조사하게 보면 아마도 전체 평균이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 이게 이제 샘플이 제대로 됐다고 한다면 선호도가 어떤 사람 상업시설 어떤 사람 주거시설 어떤 사람 공업 그 사람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 그러면 비율이 결국 같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 제 생각에 그래서 이것이 비율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 위원	- 1번에서 나온 결과는 점수로 나올 거예요. 4번에서 지금 나오는 것은 퍼센테이지로 나오거든요. - 근데. 그거 두고 비슷비슷 얼추 맞을거라고 보거든요?
○○○ 위원	- 여기서 만약 1안과 2안 3안이 120명 40명 40명 40명 들어간다. -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규모가 있을 때 상업 중심, 주거 중심, 공업 중심비율이 똑같이 같은 비율 그런데 이것이 차이가 사람에 대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원장	- 굳이 4번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있겠느냐?
○○○ 위원	- 이게 만약에 시나리오를 선택한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있느냐를 확인하는 질문이라면 우리가 있겠지만 굳이 확인해야 하는가, 앞에 자세히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숙의를 진행하는 사람, 숙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관성있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나 라는 측면에서 이 질문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이 친구의 평균을 봤더니 상업이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렇게 대체할 거며 따져보면 이게 굳이 이 질문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일단 이 설문에 대해서 용역 수행기관이 설계 구조를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용역 수행기관	- 일단 들어가는 의도는 처음에 1번에서 시나리오를 초반에는 선택을 1, 2, 3 어떤 걸 선택했는지를 알아봤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공간구성을 어떻게 할까 라는 의도로서 이게 넣은 겁니다.

	- 그런데 지금 시나리오를 각각의 척도로 묶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바뀌었어요. - 그러면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 나왔던 이거에 대해서 연관 관계 어느 정도 제대로 응답한 지 확인 정도만 가능할 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굳이 결론은 나중에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크게 의미는 없지 않을까 디테일하게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위원	- 저는 그 Q4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 세 가지의 시나리오의 의견 차이가 뭐냐 라고 하는게 직통될 텐데 이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의미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 Q4 빼자? 동의하시죠?
위원 모두	- 네
○○○ 위원	- 앞에서 연관 검토사항도 검토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각 시나리오 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어요. - 시나리오 3가지 안에 대해서 응답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관 검토 사항에 대해서, 이런 거 이런 거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걸 조사를 했어요. - 그런데 밑에 가서 공간구성에 대해서 이런 것이 몇 퍼센트,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샘플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상적으로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게 각 집단별로 적당한 인원이 들어갔다는가 하는가는 중화가 돼서 비슷하게 조금씩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개인별로는 이게 퍼센테이지가 100%지만 이게 나중에 평균을 내면 100%가 훨씬 넘을 수 있겠죠. - 왜 그러냐 하면 평균을 내기 때문에 평균에 대한 뒤에 합계는 이거 100%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상업시설, 주거시설 각각의 개인별 퍼센테이지를 평균을 낸 거예요.
○○○ 위원	- 필요할 수 있겠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업, 공공, 산업시설이 산업시설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산업시설이 1안 인가 2안 시나리오에 있는데 그건 빠져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나리오 안에는 상업, 공공, 산업시설 아니면 공업인가요? 그거에 어느 걸 선호하냐는 거지만 아까 나중에 협상이나 이런 걸 할 때 주거시설이나 설령 공원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표현을 할까 이런 측면에서는 궁금하기도 할 것 같아요.
○○○ 위원	- 저도 ○○○ ○○님 입장에 동의를 하는데요. - 단지 이거를 좀 더 상업시설에서 컨벤션, 금융타운을 빼서 거기에 IT 붙여서 업무 시설을 하나 더 늘려서 근데 그게 시나리오 A에서 나왔잖아요. - 그래서 그거를 기타 시설을 업무 시설로 잡고 하나 더 기타 나누기를 해서 업무 시설에서 구체적으로 공간구성을 물어보고 뭘 공간을 제대로 물어보지 않는 거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다.

○○○ 위원	-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에서 공원하고 이거가 지금 두 개로 나뉘져 있어요. - 우리가 시나리오 C에 중심이 되는 것이 공공시설하고 공원이거든요. 이것을 합쳐 두고
○○○ 위원	- 근데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얘기가 생길 거 같은데요. - 지지도를 물었지만 그래도 지지도를 물어도 A, B, C중에 어느 게 가장 지지도가 높았냐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 그런데 예를 들면 지지도를 물었는데 상업시설 비중이 높은 시나리오가 높게 받았다고 해요. - 그러면 맨 밑을 물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상업시설이 높은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원 시설이나 또는 다른 부분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왔어요. 그게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나왔어요. - 만약에 나중에 그거는 그러면 당연히 위원회에 있는 시나리오를 위주로 가니까 시나리오에 따라서 상업시설이 높은 비중 해석해서 권고를 하겠죠.
○○○ 위원	-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Q4를 Q1로 옮기면 됩니다. - Q1을 두면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 내가 이런 공간을 구성하고 있으니 Q4를 Q1로 놓고 가장 먼저 물어본 다음에 Q1을 두 번째로 물어보면 1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Q2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 그래서 이 위원님이 우려한 사항이 안 생길 수 있어요
○○○ 위원	- 왜냐하면 이 공간구성의 문제는 그냥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프로세스의 일환인데, 이미 시나리오 그 고민으로 시나리오가 3개로 좁혀져 왔는데 다시 이걸 물어보는 게 조사 기법상 꼭 필수적이고 어떤 분석에서 그게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능으로 해서 오히려 시나리오 워크숍까지 다 해서 시나리오를 빼냈는데 왜 별도의 시나리오 워크숍 과정에 있는 질문을 이렇게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 묻는거예요.
○○○ 위원	- 아까 저희가 시나리오를 설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사람들은 다양할 수 있고 저는 가중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사람들이 의견을 나눈 가중치 나는 어디에 중심을 두는가에 대한 것들이 같은 상업용지, 주택용지 다 달랐잖아요. - 그러면 그거는 좀 파악을 하는 것이 우리 시나리오 워크숍 우리가 정해놓은 거에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 그런 의미에서는 위원님 말 그대로 동의하고 하나 더 순서를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뭐 복합 쇼핑몰, 중심 컨벤션 타워 그다음에 아파트, 단독주택, 공공시설, 공원부터 업무 시설 글자 양이 중요하거든요.

	- 글자 정확하게 맞추고 그다음에 묻는 것도 설문지도 저는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자동으로 1번이 지금 상업으로 나왔는데 예를 들면 업무가 1번으로 올 수도 있고 오늘 설문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설문지 인쇄가 좀 달리 돼야 한다.
○○○ 위원	- 예를들어 상업시설을 시나리오 1로 저는 선택을 했지만 사실 비중 공간 시설은 공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 면적으로 보면 그건 저는 충분히 이에 대립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시나리오에 대한 가중치나 구체성에 대해서 더 견고해지는
위원장	- 일단 Q4에 대해서 일단 문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냥 Q4를 물어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 위원	-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설의 구체성을 확인하려면 상업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 공원 이렇게 묶어가는 게 사실 그 의미가 없어요. - 나는 상업시설은 그냥 쇼핑몰 센터 나는 금융타운만 안 했으면 좋겠다. - 나는 주거시설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였으면 좋겠다. - 이렇게 따지면 시설에 붙었으니까 그 공간 구성에 그 시설의 항목들을 물어보게 되면 묶어버리는 순간 왜곡이 생겨요. -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나온 공간구성이 나온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물을 것인가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4번이 오히려 왜곡이나 나중에 문제만 발생시킬 뿐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논의되서 나온 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나리오를 짜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 똑같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시나리오 첫 번째 사람들에게 구조에 맞게 공간을 구성해 보십시오 라고 했던 질문을 설문의 형태로 바뀌서 하는 거 하고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게 별 의미도 없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시나리오가 1, 2, 3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구상을 해보세요라고 하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데 이미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5점 척도로 묻고 있기 때문에 공간구성에 대한 가중치는 다 나와요. - 나오지 않겠습니까? 2번은 50% 3번은 20% 이런식으로 굳이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 그리고 시설에 구성을 묻는다고 하면 묶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위원장	- 위원님 이렇게 강하게 의견을 제시한 적이 별로 없는데, Q4에 대해서는 일단 한 번 더 정리되고 또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 다만 정리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 일단 여기에서 나중에 또 논의해야 하겠지만 순서도 좀 바꾸고 상업, 업무 분리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과 공원도 합칩니까?

	- 공공시설과 공원은 좀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리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첨단 산업 시설이 하나 더 추가되고 그러니까 업무 나누고 첨단 산업시설 나누고 그다음에 순서를 바꾸고 어느 한쪽이 글자 길이라든지 이런 것 좀 균등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업무와 첨단은 나누지 말고 같은 카테고리로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 업무 및 첨단시설 이렇게. 저기 업무 및 첨단시설 일단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Q4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에 Q5에 대해 얘기해보죠.
용역 수행기관	- Q5는 삭제입니다. 3차 때 설문할 내용입니다.
위원장	- 파트 2에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인식도 지금 현재로서는 Q6, Q7 Q9까지 한꺼번에 얘기해 주시죠.
○○○ 위원	- 대지면적은 뺐으면 좋겠고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깐.
○○○ 위원	- 잠깐만 이거는 파트 2를 어떤 의미로 물어보는지를 말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원래 이거 파트 2는요. 숙의 전후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 그러면 이 4문항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 이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 공부 효과를 보는 문항인 거거든요? 6, 7, 8, 9가요 숙의 효과 테스트 문항입니다. 그래서 사전 지식으로 그러니까 숙의를 하기 전에 사전 지식으로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4개 물어봤는데 그쪽에 나는 2개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하니까 100점 맞았다 이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4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 6개는 돼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구요. - 보기는 막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범위를 주거나 아니면 좀 근접한 예를 들어서 7만 평이냐 5만 평 7만 평 보기를 주는 게 맞고요. - 그래서 이 문항을 2개 정도 더 뽑아주시고. 그거는 시에서 추가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잘 모르시니까
위원장	- 알겠습니다. - 왜냐하면 여기에 파트 2를 묻는 이유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만큼 알게 된다. - 공부를 많이 했느냐 하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 늘려주시고 범위로 또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Q8에 대해서는 또 추가 의견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위원	- 이것도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한방직이 어떤 용도냐 그리고 현재 2030 도시계획에는 어떤 용도인가 이 두 문항은 들어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 왜냐면 본인이 잘 모르면 숙의하다가 내가 경험을 했는데 집중도가 높아지거든요. - 그래서 여기를 이 숙의를 하면서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은 그런 것들을 여기 문항에 포함을 시켜주시면 훨씬 나중에 숙의할 때 그 사람들이 관심도가 생겨서 내가 지금 몰랐는데 공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거기 지금 그 설문 Q7에 주거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그다음에 녹지지역으로 바뀌야 해요. 공업 쪽도 세분화되고
위원장	- 이것은 법적으로 보니까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것이 같은 분류상의 같은 레벨입니까?
위원장	- 네 같은 레벨입니다.
○○○ 위원	- 그리고 8번의 대한방직 부지면적 그러는데 정확하게 지금 거기가 몇만평이죠?
위원 모두	- 6만 9천 7백평입니다.
○○○ 위원	- 7만평 전 후
○○○ 위원	- 그러니까 아까 4문항으로 나뉘었으니까 2만평 전 후, 4만평 전 후
○○○ 위원	- 4만평 전후는 너무 차이가 많이나니깐. - 아까 7만 평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7만평 전 후, 8만평 전 후, 9만평 전 후, 이쪽은 잘 모르겠다 이러면 돼요. - 3개 되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알 수 있어요. - 저라도 이게 3만평 전 후 7만평 전 후 10만 평 전 후 이거로만 감을 잡아요
○○○ 위원	- 그런데 6만 9천 인데, 6만 평 정도 나오고 7만 명 정도 나오면
위원장	- 기술적인 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대한방직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고계십니까 이걸 팩트는 3개 소유자가 지분별 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	- 4번에 자광+전주시+전라북도 들어가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들어가야 해요
○○○ 위원	- 그렇지 않으면 문항을 없애든가. -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인 거는 사람들은 이게 다 자광 거라고 생각하는데, 들어가야할 것 같아요.
○○○ 위원	- 저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언론에서 이야기되는 것 중에 명확히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에 대한

	이해 없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 현재에도 개발 인허가상의 지을 수 있는 용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게 무엇인지 해서 제가 정리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 그니까 그 팩트 갑자기 상업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장황하게 도시계획 2030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가를 질문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을까.
○○○ 위원	- 그걸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현 용도 상태에서 자광이 개발을 할 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런 식의 문항이 들어가야합니다. 사람들은 거기가 공업시설이니까 아파트를 못 짓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해요
○○○ 위원	- 그런 프레임으로 토론장에서 이야기에서 이걸 좀 문제가 있다. -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지을 수 있잖아요.
위원장	-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반 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못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서 2035 앞으로 지금 주거용지로 했기 때문에 주거용지를 다시 세분화해야만 행위가 제한이 되요.
○○○ 위원	- 한 용도지역상 가능한 시설들을 전부 가능한 시설들을 전부 체크 하셔서 아파트, 호텔. 등..
위원장	- 그러니까 현 용도 지역을 묻느냐, 아니면 2035 주거용지로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바꾸는 다음에 했으니까 그걸로 묻느냐
○○○ 위원	- 이거는 그냥 속의 효과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상관 없어요. 난이도 조절도 해야해요. 점수의 차이가 안 나면 위원회가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저의 생각은 심플하게 가는데 되게 좋고요. -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2035 도시 계획상에 용도는 뭐로 되었느냐고 알고 있느냐 물어보시면 나중에 공부하면서 지금은 공업지역이고
위원장	- 지금 그 뒤에 지금 저희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하니까 줄이겠습니다. - 이것도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끝으로 통계도 다음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 (통계문항에서)2번, 3번은 뺏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구성상으로 1번은 그냥 문제없어요. 농림어업은 나중에 기타로 합쳐질 거거든요. 어차피 분석하실 때는 합칠거예요. 퍼센테이지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이걸 상관없어요.

	- 이번에는 중학교 졸업 이하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학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	- 저는 설문 기법이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는건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수용이 안 돼요. 왜 자꾸 학력을 묻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위원	- 이게 나중에 또 인지 효과가 있는지 학습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까지 보려고 하는 그것은 그냥 넣어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 위원	- 나중에 통계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우연히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자가 몽땅 나올 경우도 있어요. - 표본의 구성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거지 이게 뭐 기분 나쁘게 학력 물어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 물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 일단 무학까지 해서 하되 일단 다시 논의하도록 하죠.
○○○ 위원	- Q3이요.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질문인데요.
○○○ 위원	-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표본의 구성이나 분포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학습적인 논문을 봐서 패턴을 확인하는 유용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아니면 이미 표본구성에 성별, 지역 몇 명이라고 하는 표본구성의 분포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면 직업 소득까지 들어가는데 학력 분포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의문이네요.
위원장	- 이 건은 다음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3차, Q1 이거는 아까 그거로 바꾸는 거죠. Q1 아까 내용으로 바꿉니다. - 그리고 선택한 이유는 빼고, 그다음에 Q2도 여기 똑같이 묻는 거죠. 아까 2차와 똑같다 그렇습니다. - 그다음에 Q3도 바꾸는거 똑같죠. - 그다음에 Q3 바꾸는 걸로 해서 다시 제안해 주십시오. - 그다음에 Q4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 한번 주시죠.
○○○ 위원	- ‘그저 그렇다’ 하나 더 넣죠.
위원장	- 그런데 최종 시나리오로 선정된 결과 이게 우리가 최종 시나리오를 선정합니까? - Q4는 어떻게 하죠. 안 하잖아요. -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이걸 물어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 이거는 수용 여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 그러니까 이 논의가 잘 되서 나의 생각과 좀 다르지만 나는 이것을 어떤 결정이 나던.

위원장	- 그래서 그건 좋습니다. 최종 시나리오라는 말을 빼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 위원	- 이 문항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데 공론화 결과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지 시나리오 선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 공론화 결과로 바뀌서 일단 만들어주세요. - Q5 한번 보시죠.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을까요? -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연관 검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것으로 좀 설문을 바꿔봐주십시오.
용역 수행기관	- 그리고 앞에 아까 말씀하신 인식도를 사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챗터를 하나 넣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이 이유도 새로 바뀌서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건 이제 3차 설문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결론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역 수행기관	- 마지막으로 한 장짜리 드린 거 있습니다. 자료집하고 보고서랑 목차를 하나 한 장짜리 페이지가 있습니다. - 일단 첫 번째가 시나리오 워크숍 자료집의 목차입니다. - 그리고 두 번째가 따로 나뉘드린 시나리오 워크숍 결과 보고서 목차고요. - 향후에 저희가 OT 때 마지막에 제공해야 할 자료집 목차를 어떻게 선정할까라는 건데 일단 샘플로 가져왔는데 이거는 최종본은 아니고 그냥 샘플로 가져온 거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 일단 시나리오 워크숍 자료집은 지금 나와 있는데 옛날에 이미 발간된 거죠. 그다음에 시나리오 워크숍 결과 보고서는 지금 이번에 만든 거죠. 그리고 앞으로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이미 나간 거고요. - 시나리오 워크숍 결과 보고서와 시민참여단 숙의 자료집 시민참여단 결과 보고서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용역 수행기관	-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시나리오 워크숍 자료집에 나왔던 공론화 내용이나 배경 추진사항 이런 것들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어 있고요. 다섯 번째 나와 있는 자광이나 전주 도시계획은 없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없고 지난 워크숍 세부 진행 결과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자료집을 녹여서 보완할까라는 안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원장	- 그런데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2차에서 시나리오의 워크숍의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게 좋겠다 했거든요. - 그게 숙의 자료집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디 들어가죠?

용역 수행기관	- 일단 시나리오 배경이나 추진 이런 것들은 앞쪽에 기존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결과 보고서 안에 두 번째 열에 다섯 번째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 조금 다른 사항인데요. 우리가 시나리오 워크숍 과정 설명을 했잖아요. - 그런데 이제 자료집으로만 시나리오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과정 영상을 짧게 편집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 OT 때 시나리오 목차가 추진 배경 이런 게 나는 시민참여단 숙의 자료집도 들어가는 게 좋을거 같은데 그런데 시나리오 워크숍 결과 보고서도 주고 참여단 숙의 자료도 주고 둘 다 줍니까?
용역 수행기관	- 자료집만 줍니다
위원장	- 그러니까 시나리오 워크숍에 대한 내용이 자료집에 숙의자료집에 들어가야 한다.
○○○ 위원	- 제가 정리가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하는 사람은 지금 용역 수행기관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긴 해요.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최종 워크숍하고 공론조사까지 가는 과정에 로드맵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게 설문조사 안으로 표현되는 부분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사후 설문조사는 내용을 좀 보완해줘야겠다. - 사전 설문조사 외에, 2차 3차, 3차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조금 상의를 해서 설문 항목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참조해주시고, 일단 지금 참여 숙의단 자료집에 들어가야 할 것은 시나리오 워크숍에 대한 내용, 결과 보고서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사업계획 도시계획의 이해는 시민참여단 숙의자료집에 들어가 있는 거죠? - 그러면 숙의 자료집은 언제쯤 만들 겁니까?
용역 수행기관	- 최종적으로는 이달 안까지는 만들 예정입니다.
위원장	- 그런데 12월 12일날 하잖아요. - 그게 저 얘기는 뭐냐 하면 다음 회의 때 한 번 더 논의할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다음 회의 때까지 조금 더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회의 때는 2차 조사, 3차 설문조사 내용을 하고 시민참여단 숙의 자료집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번 회의 날짜를 정하고 마치겠습니다. - 조금 급히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24일인데 12월 초나 그 다음 주나 7일이나, 오늘 23일이죠. - 저기 2주 잡고 7일은 어떻습니까? 7일 아니면 그 전 주에 해야 하나요?

용역 수행기관	- 일단 오티가 12일입니다. - 그런데 그전에 만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도저히 안 된다면 온라인 상으로 공유하는데 그게 좀 힘들 수도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 결정이 7일날 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7일 오전 9시 반에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론화 14차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